

제 6장 공업

제 1절 서론

공업을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자연물을 가공하여, 자가 소비나 교환을 위해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자연채취나, 자연을 이용한 재배, 또는 자연 상태나 자연상태에서 변화시킨 상품을 교환하는 형태는 제조업에서 제외한다. 농업, 광업, 산림업, 축산업을 제외한다. 따라서 고성군의 제조업의 역사와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당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려 한다.

제 2절 근대이전

제 1항 일반

고성의 제조업은 크게 가야시대에 철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조 시대에는 가내 수공업이나 전문 수공업이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고성 지역은 면업이 발달하였고, 또한 통영의 외공장을 중심으로 발달한 제조업이 고성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야시대의 철 생산은 소규모이고, 내수용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타 지역의 철 생산이 일본 교역품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상품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점과는 대비되는 소극적인 면이다. 그러나 철 생산이 철기 농기구나 철기 무기류의 생산만을 위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부분적으로 타지역과의 교역을 위한 화폐로서의 철생산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세기 초반의 고성 지역은 고성 동외동 패총에서 드러나듯이, 소규모의 철 생산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이 내수용으로 사용된 것을 추정한다” (김양훈, 2013, “삼한시대 변한권역 철기생산의 추이”, [역사와 세계], 44권: 163-196).

이후의 자료는 제조업 성격의 제품 생산이 고성군에서 활발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의 물산을 정리한 책(조선총독부, 1927, [조선의 물산] (조사자료 제19집))에서도 고성군(현)에는 조선전기, 중기, 후기, 1910년 이후의 의 물산에 가내수공업, 또는 전문

수공업 제품은 나타나지 않는다. 화폐 교환경제의 발달이전에는 가내 수공업에 의해 자가 소요를 충당키 위한 제조업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 아직 가족경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여 분업에 의한 것은 극히 적으며, 생활상의 필수품은 대체로 가족의 손으로 모두 마련되며, 경작하고 곡식과 야채를 수확함과 동시에 일용품의 원료까지도 생산하며, 또한 그것을 제조하였다. 주부나 집안의 딸 및 하녀는 항상 방적과 염색, 재봉에 바쁘고, 남자들은 가장의 지휘 하에 가사의 필요에 따라, 동시에 농사, 염직, 목공 및 석공 등에 종사하고, 주류의 양조, 염료의 제조, 신발, 가구, 농구 등의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두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마련하는 것이 통례였다” (러시아 대장성 편, 1900년 전후, [한국지]: 63-64).

그러나 중앙 정부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공장이 지역마다 설치되었는데, 통영에 1593년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조선시대의 外工匠은 특정한 장소에 모여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물품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匠人이라 불렀고, 지방관서에 소속되어 수요물들의 제작을 담당한 지방 기술자들이 外공장이다. 冶匠과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을 겸영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농사철에는 귀농시키고, 농한기를 택하여 일정기간 공역하게 했다. 그러나 일부는 적어도 품목별로는 전문적인 장인이 있어서 이들의 책임하에 제조가 이루어 졌다. 즉 37개 직종에 3,511명의 장인을 두어, 중앙 및 지방의 官需를 전담시켰다. 조선조 후기에는 조세와 공물이 혼합되었으므로, 공장들은 시장경제에도 참여하여, 조선 후기 기업가로 변신하는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관수의 일부는 민간공업에 바탕을 둔 貢租(공물로 바치는 조세)에 의해 충당되었다. 농촌에는 전문적 장인과 수공업자가 있는데, 품질이 뛰어난 제품 등이 관수용으로 징수되었고, 질적으로 다소 떨어지는 제품은 자가소비에 충당하거나 시장에서 교역되었다. 그러나 조세제도가 점차 화폐화되면서 이에 적응한 장인들은 시장지향적 기업가로 변신하고, 적응하지 못한 장인들은 가내수업업적인 성격으로 정체되고 만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1800년대 후반은 경제적으로 혼란의 시기여서 가내 수공업만이 아니라, 전문수공업도 쇠퇴되었다 (러시아 대장성 편, 1900년 전후, [한국지]: 45)고 평가한다.

제 2항 면업

목화 재배를 통한 조선의 의복은 가장 기본적인 의복 재료였다. 조선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목면에 의존한 의복 제조가 중심을 이루었고, 특히 경상도 지역은 목화재배가 용이한

지역이라 목면을 이용한 의복직조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로 접어들면서, 수입 의류 원단과 경쟁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목면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은 수입류 원단에 비해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였으므로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조선인의 기본적인 의복 재료는 말할 나위도 없이 이조 초기 이래 목면이었다....목면 생산은 상대적으로 수입제 의류 원단에 비해서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강점이 있어서 비교적 늦게까지 목면생산(수공업자)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의 직접생산자층 간에는 한 벌의 의복을 계속 세탁, 수선하여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수입 옥양목은 세탁에 견디지 못하고, 곧 닳아서 떨어져 버렸다. 토포는 옥양목보다 뛰어난 내구력으로 옥양목에 대한 수요를 막고 있었다 “(梶村秀樹, 1968/1983, “이조말기 (개항후) 면업의 유통 및 생산과정: 상품생산의 자생적 전개와 그 변용”, 사계절 편집부 편, [한국근대경제사 연구: 이조말기에서 해방까지]: 101-212).

의복 제조의 원료인 목면은 상대적으로 상품화가 일찍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체 소비량의 반 정도를 시장 구매를 통해 매입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상남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목면 재배와 직조를 통해 시장경제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당시의 조선 국민은 최소한 그 총소비 면포의 반 정도를 자본제 상품이나 토포의 형태로 타 지역에서 들여온 완성품에 의존한 것이다. 나머지 반은 지역 내에서 자급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지역 내의 교환에 의해 완성품인 면포와 반제품인 면화를 취득했던 비자급자족적 부분도 당연히 있었다” (梶村秀樹, 1968/1983: 144).

면화 재배가 경남에서 성행한 이유는 다른 직조 원료 작물인 견, 마, 저마 등은 경남이 적지가 아니었다. 면화 재배의 지리적 조건이 가장 좋은 경상도 일대에서 면작이 가장 성행하였다. 견이나 마, 저마 등은 경상도가 재배 적지가 아니라서, 아마도 경상도는 특히 경남은 목면이 의복 재료의 기본이고 보편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개 토포로 일인당 연간 2필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梶村秀樹, 1968/1983, “이조말기 (개항후) 면업의 유통 및 생산과정: 상품생산의 자생적 전개와 그 변용”, 사계절 편집부 편, [한국 근대경제사 연구: 이조말기에서 해방까지]: 101-212).

그러나 경남의 면화를 이용한 광목 제품이 개항이후 수입제품을 능가하는 가격과 제품 질을 유지한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오래 유지되었다는 의미일 뿐이다. 즉 면제품이 전문적인 시장공장제도로 발달하지는 못했고, 가내 수공업의 형태로 부너지들

의 노동력을 활용한 외주 가내 하청제도를 활용한 수준이었다. “경상도에서는 직공노임으로 상품 매도가의 10%를 주는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전체적으로 제도는 달라도 거의 평균화된 임금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다른 직종의 임금과 비교하면, 용기 제조공에 비해 70% 수준, 마부 수레꾼 짐꾼에 비해서는 낮은 임금이다. 이런 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녀자들의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

그러나 적어도 18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목양목의 경상도 제조는 쇠퇴를 시작하여, 1910년대에 접어들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서의 경상도와 전라도 면포의 유통액에 대해서, 20년전 (1892년)까지 경상도 면포는 10만 필의 다수에 달해서 일본과 서양 면직물의 수입이래 급속히 감소되어 이제는 겨우 2,3만 필에 불과하였다” (조선총독부, 1912, [경성, 인천 상공업 조사]: 160, 전석담과 최윤규, 1958/1989, [조선근대 사회경제사: 19세기 말 - 일제 통치말기의 조선사회경제사] (이성과 현실)에서 재인용). “면화는 황해도 및 경상도에 생산액이 많지만, 그것을 면화형태로 그대로 전부 일본에 수출되어 일본에서 정제되어 다시 조선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외국의 면제품이 계속 수입되어 와서 한국의 면직이 쇠퇴하여, 1897년에는 이미 조선의 면화 수출이 두절되었다” (러시아 대장성 편, 1900년 전후, [한국지], 경기 충청 강원도 편: 542).

[표 1] 진주목 섬유제품 생산량, 1895년

항 목	수 량
총 호수	14 천 호
면화 총수확고	1,030천 관
목면 총직조고	600천여 疋,
명주 총직조고	30천여 疋

출처: 岡崎唯雄, 1895. 4월 - 7월, [朝鮮內地調査報告]

[표 2] 경남지역 면직 직조현황, 1895년

지역명	총호구	면 재배호수	목면직 호수	1호직조량	1년 직조량
고성현	10천 호	?	5천여 호	11疋	55천여 疋
진주목	13,640	10,000호	10천여	60	600천
사천현	3,030	?	3천여	11	33천여

출처: [日韓通商協會報告] 4호, 1895. 12월, 상업부

[표 1]과 [표 2]를 보면, 적어도 조선조의 전통적인 목면 직조가 수입직조물과 경쟁하던 시기에도 고성은 진주의 광목 제조권에 포함되어 전문적인 아니나마, 수공업적인 가내 공업이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성은 면작을 많이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면화를 들여와, 대량으로 상품 면포를 제직하여 이출하는 지역이다. 사천도 고성과 같은 상황이다. 경상도내에서는 진주 다음가는 직조사업지로 고성 등이 꼽힌다. 생산량이 최대인 진주지방이 품질도 질기고, 근수가 많이 나가는 면포를 생산하여 최고의 신용이 보장되었다. 그 다음으로 고성의 면포이다”. 고성의 면포는 면화재배 지역은 아니지만, 재배된 면화를 수입하여, 제조하는 형태를 띄웠고, 가내수공업 수준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경남 외의 지역에 비해서는 고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표 3] 土布의 가격, 1894년 원산항기준

산 출 지 역	가 격
晉 木 (진주산)	750文
義城 木	700
固城木	690-700
全木 (전라도 산)	550-650

출전: [通商彙報], 11호, 1894. 11월호

고성목은 고성에서 산출된 광목을 의미하는 데, 고가품으로 명성이 나 있었다. 때로는 고성목이 “진목보다 더 높은 최고 가격을 유지하고, 또 품질도 훨씬 진목보다 뛰어” ([韓日通商協會報告], 4호, 1894년: 4)나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뛰어난 직조기술을 보유한 이유를 통영에서 유입된 전문 수공업자들이 직포업에 종사해서 그러한 좋은 품질의 직포를 제조하였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경상남도의 용남(통영)이라는 작은 군이 한성시에 이어 2위 (1910. 5. 1일 현재 조선인 직업별 인구통계)를 차지하는 913명의 공업인구 (호주 이외의 가내 노동력은 거의 계산되어 있지 않은 통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지역은 이조의 군사근거지의 하나였던 오늘의 충무, 통영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원래 고성의 일부였다. 그렇다면, 일찍부터 다른 지역에서 면화를 수입하여 비교적 양질의 면포를 이출했던 고성의 직포업은 주로 이 충무(통영) 부근의 농업에서 분리된 전문 수공업자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이들 전문 수공업자를 이조의 용병으로 모집되었다가 실직한 사람으로 추정한다. 어느 정도의 노동력의 상품화가 진행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성군에서 직조업이 발달한 지역은 서부지역으로 기록되고 있다. 즉 고성 동부는 자급 자족 지역, 고성 서부는 면화 면포 주요 이출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경상도 남부에서 생산된 면포는 해로를 이용하여, 함경도 특산물인 명태(북어)와 교환되곤 하였다. 울산과 원산으로 이동하여 교환되었다.

제 3항 통영의 외공장

통영의 외공장은 1593년에 설치한 한산진영에서 시작되었다. 통영에 외공장은 12工房, 240-270명의 片首(유급 장인), 工人(무급 장인) 등의 장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12공방이 외공장으로 불리운다. 그러나 이들 외공장은 1895년 통영의 통제영이 폐영된 이후 장인들은 흩어졌다. 흩어진 장인들중 일부가 고성으로 유입되어 전문 수공업에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영의 외공장을 통해 제조업이 발달되었고, 외공장의 하청이나 상품 연결 고리에 고성 지역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12개의 외공장중, 이후에도 유명한 것은 칠기 제품의 생산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르러, 칠기생산은 쇠퇴하고 만다. 漆液은 거의 일본과 청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조잡한 이용품만 생산했다... 조선 제일의 산지로 불리는 경상남도 통영의 최근 6년간 생산액을 보면, 그 성쇠의 하나는 족히 추측될 것이다. 1904년 1,400원, 1905년 1,100원, 1906년 760원, 1907년 930원, 1908년 850원, 1909년 600원이었다”(山口精, [조선산업지], 중권: 510).

제 3절 근대

제 1항 식민지 시기

식민지시기 초반은 조선시대의 전문 수공업이 쇠퇴하고, 근대적인 일본과 서양의 제품이 유입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공업이 적응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는 한반도의 경제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민족 경제의 관점에서는 쇠락기로 표현할 수 있다. “1910년대 전반을 통해 일본인 공장은 대규모화하고, 조선인 공장이 영세화되어 갔다. 몰락하는 소상공생산자의 전업적 수공업의 많은 부분이 그 활로를 성장하는 도시와 도시 주변의 새

로운 형태의 수공업장에서 구했다. 재래의 전통적인 수공업은 파괴되어 가고, 그것에서 분리됨으로써 그들은 새로이 수입된 도구에 의해 제사, 직포, 편물, 구두, 장신구, 연초, 과자 등의 제조에 종사하였다 “ (전석담과 최윤규, 1958/1989: 135).

1910년대 말기부터 일본이 중국의 동북부로 진출하는 시기인 1930년대 초반 전에는 한반도의 제조업은 일본 제조업의 원료공급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10년대 말기가 되어 공장건설은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리하여 농산물과 원료의 유통부문을 통하여 약탈에서 점차로 생산부문에서의 착취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국가 자본에 의한 기업을 제외하여도, 곡물과 공예작물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정미업, 섬유원료 제조부문 등이 발전하고, 지하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산 등이 개발되었다” (전석담과 최윤규, 1958/1989, [조선근대 사회경제사: 19세기 말 - 일제 통치말기의 조선사회경제사] (이성과 현실): 146).

일본 의존적인 제조업이 전성기에 이른 시기의 제조업 상황을 보면, 정미업을 포함한 식료품 산업, 방직공업 등 일본의 식량과 의복제조를 제조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일본 산업이 그래도 한반도에 이식되었거나, 연관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즉 일본이 거주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인을 위한 식료품 산업이나,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정미업을 중심으로 식료품 산업이 발달하였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표 4] 공업부분 생산액. 1929년

분야	분포	비고
식료품 공업 (정미업)	63.5%	식량 약탈과 관련. 대규모 생산
방직공업	10.9%	공장의 대규모 종업원 고용, 공장의 대규모화.
금속공업	5.8%	대규모 생산

출처: 전석담, 최윤규, 1958: 229

다만 한반도 전체적으로 1930년대 초반부터, 일제가 중국 동북부를 침탈하면서, 한반도를 중국 진출을 위한 공업기지로 개발하면서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다고 평가하면 된다. “1932년에는 화학공업이 부상하여 공장당 종업원 규모가 커진다” (전석담, 최윤규, 1958: 231).

고성에 대한 공장 자료가 직접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일제시기에 공업이 발달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다만, 여기에 경남의 전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경남의 공업 상황 변화에 따라, 고성군의 공업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는 1922년, [표 6]은 1927년 현재 경남의 공장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표 5] 경남의 공장 현황, 1922년

업 종	공장수	일인 종업원	한국인 종업원
정미업	56개	62명	1,173명
양조업	42	212	84
제염업	44	673	929
과자류 제조업	18	43	60
철공업	20	184	285
주물제조업	15	28	98
조선과 수리업	11	88	21
토관연와류 제조업	17	34	210
도자기 제조업	14	6	438
전기와 와사업*	2	30	58
펄프 제조업*	1	70	69
인쇄와 제본업	13	50	174
직물제조업*	6	54	1,613
제지업	14	37	71
기 타			
합 계	381개 공장	일인 종업원 1,787	한국인 종업원 6,234

출처: 경상남도, 1922, [道勢一斑]: 100-103

주 1: 경남은 현재의 울산과 부산을 포함한 지역을 의미한다.

주 2: 전기와 와사업은 근대적 대규모자본이 투입되었고, 펄프제조업은 근대적 대규모 공장을 의미한다. 직물 제조업은 이미 근대화된 공장으로 고용인력도 대규모이고, 생산고도 높은 상황이었다.

[표 6] 경남의 공장현황

업종	지역	비고
제면공장	진주조면공업, 마산조면공업*	
직물	부산형무소 진주지소 형무소 노동력 활용	
編組물	조선제망주식회사 (통영)	
紙	의령군 제지조합, 합천군 제지조합, 산청군제지조합	
製材	목가전 제재공장 (마산)	
漆工器	통영칠공주식회사 (통영)	
船舶	국전 조선소 (마산)	
도자기	조일요업합명회사 (창녕)	
煉瓦(기와)	藤勝(등승) 연와공장 (창원)	
淸酒	정출 주조장 등 9개 (마산)	
醬油(간장)	적송 장유 양조장 등 2개 (마산)	

출처: 조선총독부, 1927, [조선의 물산] (조사자료 제19집)

주 1: “마산에 200명 이상 고용하는 조면공장이 대일 수출을 위해 1920년부터 존재하였다” (전석담, 최윤규, 1958: 313)

1920년대 경남의 공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인 식료품과 직조업, 그리고 외공장의 업종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 다만 전기와 와사업과 펄프제조업이 근대적인 제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장인들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가 보다는 일본인들의 근대적인 기업에 포섭되어 활동하고 있거나, 이들의 기술을 이용하여 일본 경제 속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 어느 정도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는 [표 7]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7]에서는 고성군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면직물이 발달하였지만 부분적으로 진주만이 존속하고 있었고, 사천이나 고성 이미 소멸한 것으로 짐작한다.

[표 7] 경남의 특산물, 1927년

품명	지역	비고
면포	진주	
마포	거창, 합천	
朝鮮紙	의령, 합천	製紙계, 제지조합, 제업조합이 존재
나전칠기	통영	취업자 2백여 명
목기	함양	
寒天	경남북도가 유리.	농가의 겨울 가내작업이 가능

출처: 조선총독부, 1927, [조선의 물산] (조사자료 제19집)

[표8]은 일본인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맞는 식료품업을 경남도에서 발달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식료품 품목이 한국인의 먹거리가 아니라, 일본의 것이며, 또한 발달한 지역을 보아도,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남의 원재료를 활용하여 일본인을 위한 식료품을 제조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일본이 전개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8] 경남의 특산품 製造家

품목	지역
타올	전주곡포 공장 2개 (창원)
煮干鱈(간 정어리)	통영 1개, 남해 1개
乾海苔	하동
건鱈(가자미)	통영 3개, 남해 1개
蒲朶(창포풀)	통영 4개
櫻干(앵두나무 장식)	통영 3개
海鼠의 腸(창자)	통영 4개
鯛(도미)의 花	사천과 삼천포 3개
練雲丹(익힌 우니)	통영 4개
鮎(점, 메기)의 粕漬(박지, 메기 절인 것)	밀양 2개
馬浦의 雪	마산 1개
調味噌	마산 1개
沙魚(상어)甘露煮	마산 1개
鹽鮎(절인 메기)	밀양 2개
鮎ウルカ(메기 창자, 알 것)	밀양 2개
苹果(사과)	밀양 1개
梨(배)	김해 5개

출처: 조선총독부, 1927, [조선의 물산] (조사자료 제19집)

제 2항 해방이후

해방이후 1980년말까지는 고성군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거의 식민지 시절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남도내 대부분의 군은 전통적인 1차 산업 중심의 산업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허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과정 또한 단순성과 계절성을 벗어나지 못해 산업의 경쟁력과 탄력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성군, 1995, [고성군지]: 761). 그러나 고성군과 인근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었다. 즉 1974년에 안정국가공단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1996년에 한국가스공사와 대우그룹이 공동개발안을 확정하게 된다. 즉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궁극적으로 공단 조성이 성공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획 발표 후 4반세기가 흐른 후에야 실현될 수 있었음을 전제한다면,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의 흐름에서는 30년이상 뒤늦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9] 연도별 기업체 수 변화

지 역	연 도	기업체 수	종업원 수	비 고
거제와 고성	1973년	134개		
고성군	1981년	18개	249명	
	1987년	16개	345명	
	1990년	39개	1,488명	농공단지 조성

출처: 1973년도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 1984, [상공회의소 100년사]

[표 10] 고성군 산업의 업종 분포, 1990년

	섬유	화학	기계	기타
1981년			5개 업체	13개 업체
1990년		2개	2개	35개

1990년의 고성군의 공업 현황을 보면, 경남전체는 섬유, 화학, 기계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성군은 오히려 감소하는 있는 추세였고, 기타 업종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조적으로 영세한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성군, 1995: 762).

제 4절 1990년대 이후

제 1항 생산과 고용

최근의 고성군의 제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일단 중소기업 통계, 등록공장 통계, 제조업 사업체 통계 등을 그대로 나열해 본 것이 [표 11]이다. 이를 통해 보면, 1980년대 후반에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고성군의 공업이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면, 이후 꾸준히 발전하다가, 2005년이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연도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표에는 다루지 못했지만, 최근에 조선산업 경기의 침체로 말미암아, 고성군의 공업이 정체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할 수 있다.

[표 11] 고성군의 공업 현황

연 도	공장수	종업원 수	연간 매출액	비 고
1992년	58개	1,944명		
1993	57	1,868	1,315억원	
1999	89	2,111(상시)		중소기업 통계
2001	99			
2005	119	3,334	4,186억	
2006		1,675		
2007	412	4,214		
2010	410	5,504	11,436억	

[표 12]는 업종별 변화의 추이를 정리한 표이다. 이 표는 현재의 고성군의 공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조선관련 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관련이 가장 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연관된 1차 금속 기계산업이 뒤따르고 있다. 나머지의 전통적으로 고성군에 존재하던 산업은 점진적 성장 또는 자본집약적 발전의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2001년의 자료만 보더라도, 제조업은 식품·화학·기계 공업이 중심이지만, 비교적 공업은 뒤떨어져 있다. 2001년 현재 99개의 제조업체 가운데 식료품이 58개로 가장 많고 금속·기계 13개, 화학 7개 순이다. 농공단지는 2곳으로 고성읍 울대리(栗垈里)의 울대농공단지에는 13개 업체, 회화면 배둔리의 회화농공단지에는 11개 업체가 각각 입주해 있었다.

[표 12] 업종별 변화 추이

단위: 공장수(개) / 종업원수(명)

연도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기계	화학	목재제지	운송장비	기 타
1992년	24/1,021	12/168	4/150	7/344			10/113
1993	24/1,021	12/168	4/123	7/390	5/60		5/106
1999	44/969		9/267	6/260			
2001	58						
2007	188/1,375	26/138	60/845	7/188		53/1,268	11/139
2010	171/1,304	23/144	48/653	13/206	12/37	962,919	25/162

1990년대 제조업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93년에 조사된 중소제조업 사업들에 조사를 소개한다. 조사의 주요 내용을 거주 분포, 연령분포, 임금수준, 인력조달 방식, 운영자금의 조달, 가동율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거주분포 : 기계금속 업종의 사원은 마산, 창원 등지에 거주, 반면 식품업종 (원부자재를 지역에서 조달)는 대개 고성군에 거주.
- (2) 사원들의 연령분포 : 대개 20-30대 연령층. 그러나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식품업계는 40세 이상이 60%수준 - 생산과정이 단순, 인근 주민과 지역내 유희인력인 부녀자의 고용이 많음.
대규모 업체는 젊은 연령층, 소규모업체는 고연령층 (고성군, 1995: 772).
- (3) 임금수준: 전국 평균임금에 못 미친다.

[표 13] 고성군 제조업 초임 월평균 임금, 1993년

	생산직	사무직
남자	55만원 / 전국 60만원	57만원 / 전국 61만원
여자	40만 / 47만	40만 / 50만

(4) 인력 조달

농촌지역 중소기업 - 구인광고 41%, 연고관계 46%, 공개채용 5%

농수산물업계 - 구인광고 40%, 연고관계 47%

20인 미만 업체 - 연고관계 50%

(5) 운영자금 조달

은행 66%, 자기자본 19%, 2금융권 10%, 사채시장 5%

식품업체 기업들 - 자기자본 조달 30%, 화학업체 사채시장의존이 13%

(6) 가동율

“지방중소기업의 가동율이 부진한 것은 관내 소재한 기업의 상당수가 식품업종 등 계절업종, 단순 부녀노동력이 집중된 노동집약 업종이 다수.

공산품 업종의 가동율은 높고, 식품업종은 낮다.”

제 2항 제조업의 지역 분포

[표 14] 제조업 지역 분포의 변화

단위: 공장수 개/ 종업원수 명

	1992년	2007년	2010년
고성읍	21개 / 1,014명	188개 / 1,447명	181개 / 1,562명
삼산면		11 / 163	12 / 169
하일면		15 / 179	16 / 167
하이면	13개 / 270명	28 / 225	22 / 125
상리면		13 / 61	16 / 128
대가면		7 / 101	6 / 17
영현면		6 / 13	6 / 13
영오면		14 / 75	14 / 49
개천면		3 / 5	4 / 6
구만면		16 / 106	12 / 223
회화면		34 / 320	33 / 346
마암면	3개 / 250명	10 / 307	11 / 372
동해면	3개 / 112명	42 / 951	49 / 2,012
거류면		25 / 101	28 / 306

고성군내에서도 공업의 발전은 지역마다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업의 극적인 성장은 동해면을 중심으로 거류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하이면, 대가면은 오히려 쇠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점진적인 성장이나,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산업의 발달은 고성군의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동해면의 경우를 중심으로 보아도, 1992년에는 조선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2007년에는 선박 및 보트건조에 23개 업체, 583명이 고용되어 있고, 2010년에는 기타운송장비 (사실상 조선 부문)에 41개업체, 1,910명이 고용되어 있다. 따라서 동해면은 2005년에서 10년사이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조선산업은 동해면만이 아니라, 고성군내 다른지역의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2010년의 조선 산업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고성읍에 28개업체, 435명, 거류면에 7개업체 151명, 영오면에 1개업체, 18명, 구만면에 7개 업체, 187명, 마암면에 3개 업체, 37명이 고용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산업은 고성군의 동해면을 비약적으로 발달시키기도 했지만, 고성읍, 구만면에도 파급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제 3항 공업단지

[표 15] 공업단지의 변화

연도	단지 수	입주업체 수	고용인원
1987년	0개		
1992	2	7개	450명
1999	2	14	374
2005	2	21	722
2006	3	22	852
2010	8	42	1,640

주: 공업단지는 2010년 현재 농공단지와 일단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이후 조선산업특구가 지정 운영되었다.

공업단지의 변화를 보아도, 전반적인 고성군의 공업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한다. 즉 1990년경에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위기를 맞이하였다가, 점차 성장하여, 2005년이후에 급속히 성장함을 알 수 있다. 공업단지는 각각의 경우에 그 목적을 달리하는데, 초기에 조성된 고성읍의 울대 농공단지는 거제조선공단은 물론, 향후 인근의 안정국가공단 개발에 따를 배후 협력공단으로서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며, 지역내 부존 원자재를 활용한 식품 가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성군, 1995: 766). 또한 회화면에서 1994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회화농공단지는 “인근, 마산, 창원 배후 협력단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고성군, 1995: 768)하에 조성되었다.

2010년이후에 조성된 공업단지는 모두 조선산업을 겨냥한 것이었다. 가장 규모가 큰 동

해면의 장좌일반 산업단지 (16만평), 내산일반 산업단지 (7만평)은 모두 조선 산업 특구를 이루는 것이다. 당초에 계획된 양촌용정지구의 6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은 삼호조선이 주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규모가 큰 마동농공단지, 세송농공단지 역시 조선산업을 위한 공업단지로 조성되었으며, 나머지 모든 공업단지들은 동해면 바깥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조선산업을 겨냥하고 조성되었다.

제 4항 기업들

[표 16] 1990년대 신규 입주 기업들

입주연도	입주지역	회사명	제 품	비고
1990년	마암면	고려선용	선용품구조	
1991년	영현면	동보판지	골판지	
1991년	마암면	고덕산업	의류	
1992년	고성읍	부광기업	유리제조	
1992년	마암면	태진기업	선박부품	
1995년	구만면	경남참다래영농조합	유기질 비료	
1995년	삼산면	경남무림	강화플라스틱	
1995년	삼산면	서영	건축내장지	
1995년	마암면	제일수출포장	포장용 판지	
1995년	거류면	성일	자동차 부품제조, 절임식품제조	
1996년	고성읍	플라우드 코리아	플라스틱 시트	
1996년	마암면	미산정비	곡물	
1996년	하이면	백천음료	먹는 샘물	
1996년	고성읍	대성연사	로프끈	
1996년	고성읍	대륙	어망 어망	
1996년	마암면 삼락리	고려화학->주 고려노벨 화약으로 상호를 변경		
1997년	고성읍	중앙	합성수지선 건조	
1997년	거류면	해모산업	사료용 고등어	
1997년	영현면	호만기업	비금속재생	
1998년	마암면	대광중공업	철구조물	
1998년	거류면	해동물산	수산물 냉동제조	
1998년	상리면	태광산업	어부자	